전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무안 전남여성가족재단서 관리 102명 대상

"교육공동체 이해 통해 함께하는 유아교육

전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장과 원감 등 유치원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4일 오전 무안군 상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도내 사립유치원 관리자(원장·원감) 102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통한 함께하는 유아교육 실현'이란 주제로 역량강화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교육공동체의 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 이를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관리자의 역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찬회에서 아이플러스 부모교육연구소 전우경 소장을 초청,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들은 유치원 관리자들은 요즈음 학부모에 대해 이해하고, 학부모가 유치원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공유한 뒤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돼 서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립유치원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연찬회는 7월 개정 예정인 누리과정 방향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관리자로서의 역할 제고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연찬회에 참석한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학부모와 부모의 입장 차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고, 앞으로 학부모와 소통하며 함께 하는 유치원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시스템 도입, 투명한 회계 운영, 교사대상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미래 개척 전남대표 국립대학으로 도약"

순천대 제9대 고영진 총장 취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3일 70주년기념관에서 제9대 총장 고영진 박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장석웅 전남교육감, 허석 순천시장, 안세찬 총동창회장, 전임 총장을 비롯해 각 대학 총장과 부총장, 각급 기관장과 대표, 시·도의원과 언론인, 퇴직 교수와 발전지원재단 이사 등 학교 관계자와 교직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고영진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고 총장은 취임식에서 "지역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전남대표 국립대학 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고 총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대학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대학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전을 마련해 지역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전남대표 국립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대학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대학 △미래를 개척하는 대학 △전남대표 국립대학 등 5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순천대는 지자체와 연계해 취·창업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산학융합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천연물센터 연구를 실용화하는 등 지역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와 취·창업 연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이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융복합 교육과 연구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며, 국제화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거점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영진 총장은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학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순천대학교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향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학생 기초기본능력 책임교육 지원"

화순교육지원청,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직무연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초기 문해력 및 수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2019. 초등 1, 2학년 담임교사 직무연수'를 관내 초등 1, 2학년 담임교사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습부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되는 이 연수는 5월 23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하여 운영된다.

집합연수 교육과정은 학급운영에 꼭 필요한 상담, 학급경영 사례, 교구를 활용한 수학지도 및 수업설계, 초기 문해력 지도 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의 위주에서 연수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참여, 실습 위주로 구성하여 교사가 내 것으로 만들고

현장에 바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아산초 박명식 교사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동질감을 갖고 서로 공감하며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열정과 함께 역량을 갖춘 강사진, 다양한 사례중심의 연수 운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다"는 연수 소감을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전남교육연수원, 공간 재구조화 역량강화 연수

전남도교육연수원(원장 김석수)은 3일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스페이스코웍(SPACE CO-WORK)에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전남교육연수원 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간이 교육을 바꾼다'라는 부제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는 여러 형태의 연수가 가능한 공간 재구조화와 혁신전남교육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는 ▲'공간과 시민성' 주제 특강(교육부 정책보좌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김태은), ▲한국전력공사 파빌리온, 도서관 탐방을 통한 공간 자료 탐색, ▲공간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모둠별 토의, ▲발표 및 공유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남교육연수원은 올해 학교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연수원이 되기 위해 '최적의 연수환경 조성'을 운영과제로 정하고, 연수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연수원의 강의실, 도서관, 북 카페 등의 변화를 통한 공간 혁신의 실질적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광주 지한초 1학년 51명 '입학 백일잔치'

장미·바비큐 파티·케이크 커팅식·감사 편지 전달

광주 지한초등학교 1학년 51명 학생들의 입학 백일을 맞아 5월 30일 '입학 백일 축하 잔치'가 열렸다.

입학 백일을 축하하며 학부모들은 축하 편지를 써서 전달했고, 학생들과 담임교사는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함께 축하 노래를 불렀다. 또한 교회인 장미가 붉게 핀 야외 놀이 공간에서 숯불 바비큐 파티를 열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다 함께 즐거운 점심 식사를 즐겼다. 마지막으로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감사편지를 써 전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모두 참여하는 멋진 행사가 되었다.

특히 교장, 교감선생님이 직접 구워주는 고기를 먹은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쌈을 싸서 교장, 교감선생님의 입에 넣어드리고, 담임교사가 부모님의 축하 편지를 읽어주자 몇몇 학생들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학년 담임교사는 "학교 관계자분들과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입학 백일잔치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지한초등학교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느낌으로서 슈퍼스타의 꿈과 끼를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다.

조인호 기자

광주동부교육청, '카페 소유(SO YOU)' 개소식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이 3일 동부교육지원청 현관에서 '동청카페, 소유(SO YOU)' 개소식을 열었다.

카페 명칭은 동부교육청 전 직원에게 공모해 16개의 명칭이 공모되었고, 이를 전 직원에게 투표한 결과 '소유(SO YOU)'로 결정됐다. '소유'는 '소통'과 '여유'의 준말로 '개개인이 소통하고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 공감하고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동부교육청 장영신 교육장은 "동청 카페 소유(SO YOU) 개소로 직원과 민원인들이 사무실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보다 청렴한 동부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광 주 지 국 안 내

계 림	010-3635-7195	백 운	010-2943-8374
중 앙	010-3365-6200	광 산	010-5604-6533
학 운	010-4166-1810	송 하	010-8620-1925
광 천	010-6612-8599	임 동	010-2656-4543
금 호	010-6636-2775	양 산	010-2646-3205
상 무	010-5359-7406	오 치	010-7532-3313
풍 암	010-6634-5084	북 구	010-4601-2080
화 정	010-8438-3819	동 운	018-611-7751
봉 선	010-9474-0212	용 봉	010-4601-2080
진 월	010-2615-8374	두 암	010-2684-6091

◆ 시 외 안 내

강 진	010-4606-0660	영 암	010-5655-2415
담 양	010-3629-9016	완 도	010-9578-5900
무 안	010-5234-2313	장 성	010-5287-7711
보 성	061-853-9125	장 흥	010-6234-6226
순 천	010-2300-9083	진 도	010-3081-5203
광 양	010-5604-6981	함 평	010-3625-3160
여 수	010-6655-8503	화 순	010-2077-6464
영 광	010-3611-3081	곡 성	010-3615-1088